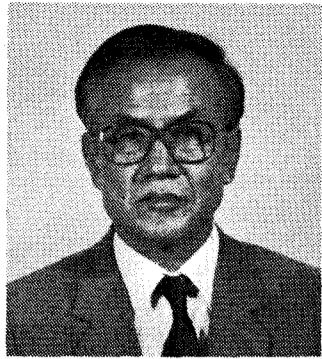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의 뇌졸중 발생동향



이 학 중
(단국대의 교수)

통계청과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자료를 중심으로

료수집 방법상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매년 어떤 질환이 어떤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는 과거 3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각종 질환의

증중의 발생동향에 관한 소견도 위와같은 근거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뇌졸중의 가장 중요하고도 빈번한 원인은 고혈압이므로 뇌졸중의 발생률을 순환기질환의 각도에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뇌졸중의 증상·진단·치료는 신경학적 측면이 중요하나, 원인·예방은 순환기학적 측면의 비중이 더 중요하다. 2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결핵이 해결되니까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혈압이 발생할 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고혈압의

한 합병증은 효과적 고혈압 치료로서 발생률이 감소한 대신, 오랜 경증고혈압과 기타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동맥경화성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오히려 발생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로 해석된다. 아주 흥미롭게도 뇌졸중에서도 이와 거의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과거에 발표된 문헌과 전국의 우수한 대학병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뇌출혈과 뇌경색의 비율을 연대별로 비교한 일 있다. 뇌졸중의 여러 병형 중에서 뇌출혈은 고혈압의 직접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뇌경색은 고혈압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며 동맥경화와의 관련성이 깊은 질환이다. 따라서 심장의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호관계와 비슷하다고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뇌졸중의 발생연령도 과거 보다는 노령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청의 뇌졸중에 의한 사망연령이 최근에 올수록 더 노령화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뇌졸중의 발생을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발생 및 사망연령이 노령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혈압의 조절기간이 연장된 결과이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도에 시인통계를 보면 뇌졸중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80.4명으로, 전체 사인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비율은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수준으로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큰 변동이 없지 않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뇌출혈은 계속 감소할 것이며 그 대신 뇌경색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리된다. 실제 뇌졸중의 발생률은 사망원인으로 나타난 수치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뇌졸중에 이환되었다가 회복되고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뇌졸중 발병연령의 노령화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보다 철저한 고혈압 관리와 동맥경화의 예방책이 보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뇌졸

50년대 부터 고혈압 합병증 크게 증가 최근엔 뇌출혈은 감소, 뇌경색은 많아져

발생동향을 알아보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본다. 사망원인 통계는 자료수집 초기인 1980년대 초에는 자료정리 방법의 미숙으로 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된 적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나서 그 신빙성도 많이 제고되었다고 생각된다.

뇌졸중의 정확한 발생률을 매년 인구에 기초한 통계방식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을 두고 각급 병원의 입원환자중 뇌졸중이 차지하는 비율, 사망통계상 나타나는 뇌졸중의 비율, 외견상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 뇌졸중의 제일 중요한 원인인 고혈압의 유병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뇌졸중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밖에 없다. 이 관찰결과가 의학적 제반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한 선진국의 경험과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면 우리의 관찰결과도 정당화 된다고 생각한다. 본 란의 뇌

합병증으로 심부전·신(腎)부전·뇌졸중을 앓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현상이 현저하여 진것은 1950년대 부터였다고 생각되며,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뇌졸중의 발생률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이 당시의 병원집계를 보면 순환기질환

할 수 있다. 이 관찰결과에 의하면 뇌출혈이 전체 뇌졸중 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년대에는 46.1%, 70년대에 39.1%, 80년대에 33.2%로 유의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뇌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년대에 33.9%, 70년대에 34.1%,

고혈압조절과 동맥경화증 예방으로 뇌졸중 발생을 점차 감소시켜나가야

중에서 뇌졸중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내과입원환자의 10~25%에 달하였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달라진것은 고혈압관련질환으로서 60~70년대에 극소수에 불과하였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80년대에 급상승하였고, 반대로 60~70년대에 상당수에 달하던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80년대에는 극히 드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고혈압 자체에 의

80년대에 32.6%로 30년간에 걸쳐서 비교적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사인통계에 의하면 1982년 부터 1992년까지 전체 사망원인 중 뇌졸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의 수준을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종합하여 보면 지난 10년과 현재에 걸쳐서, 뇌출혈의 발생률은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며 뇌경색의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중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까지는 서서히 감소추세를 나타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시기까지 또 어느 정도까지 감소할런지는 추측할 수 없다. 이것은 보건의료와 사회발전의 복잡한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뇌졸중 발생상황은 후진성인 측면이 많아, 앞으로 고혈압의 완전한 조절과 동맥경화의 철저한 예방책으로 후진성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주요질환의 발생률을 알아보는 데는 몇가지의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망원인통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 및 각급 종합병원에서 매년 집계하는 '환자통계' 등이다. 이들 자료는 자

謹 賀 新 年

서울시의사회

전화... 六七六一九七五一(四)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3-99

- | | | | | | | | | | | | | | | | |
|---|---|---|---|---|---|---|---|---|---|---|---|---|---|---|---|
| 회 | 부 | 부 | 부 | 부 | 총 | 법 | 학 | 의 | 의 | 보 | 재 | 공 | 섭 | 사 | |
| 회 | 회 | 회 | 회 | 회 | 무 | 제 | 술 | 무 | 무 | 험 | 무 | 보 | 외 | 무 | |
| 장 | 장 | 장 | 장 | 장 | 사 | 사 | 사 | 사 | 사 | 사 | 사 | 사 | 사 | 장 | |
| 李 | 池 | 韓 | 羅 | 朴 | 李 | 高 | 河 | 池 | 張 | 李 | 金 | 金 | 崔 | 文 | 金 |
| 相 | 三 | 光 | 錫 | 贊 | 玲 | 一 | 海 | 幸 | 東 | 昇 | 榮 | 昌 | 遮 | 龍 | 相 |
| 雄 | 峰 | 秀 | 燦 | 奎 | 海 | 煥 | 求 | 玉 | 翊 | 哲 | 春 | 周 | 効 | 子 | 洙 |